

尹 “재정 늘리면 고물가에 서민 죽어…긴축재정 필요”

비상경제민생회의…“예산 재배치, 받던 사람들 저항” “아주 탄핵시킨단 얘기까지 나오지만 하려면 하리라”

윤석열 대통령은 1일 “재정을 늘리면 물가 때문에 또 서민들이 죽는다”며 정부의 긴축 재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마포구에 있는 한 북카페에서 주재한 2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의 모두 발언에서 “어려운 서민들을 두통하게 지원해주는 쪽으로 예산을 재배치시키면 (반대 측에서) 아우성이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민생 타운홀’ 방식으로 진행된 이날 회의에는 주부, 회사원, 소상공인 등 다양한 직업과 연령대를 가진 국민 60여명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수행하다 보니까 참 쉽지 않다”며 “결국은 돈이 드는데 정부 재정 지출이 딱딱 늘어나면 물가가 오른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래서 불요불급한 것을 좀 줄이고 정말 어려운 서민들이 절규하는 분야에 (예산) 재배치시켜야 하는데 (정부 지원금) 받아오던 사람들은 죽기 살기로 저항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새로 받는 사람은 정부가 좀 고맙기는 하지만, (반발하는) 이 사람들과 싸울 정도는 안 된다”며 “받다가 못 받는 쪽은 그야말로 정말 대통령 퇴진 운동을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반대 측에선) ‘내년 선거 때 보자. 아주 탄핵시킨다’는 이야기까지 막 나온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런 주장에 대한 자신의 답변이 “하러면 하십시오. 그렇지만 여기에는 써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어떻게 보면 서민들이 오늘날과 같은 정치 과잉 시대의 희생자일 수도 있다”며 “어쨌든 누구의 탓으로 돌리지 않고, 이것은 대통령인 제 책임 또 우리 정부의 책임이란 확고한 인식을 갖고 오늘 잘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희가 잘 결정해서 국정에 제대로 반영하겠다”며 “모든 것은 제 책임이다. 제가 잘하겠다”고 강조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서울 마포구 한 카페에서 주부, 회사원, 소상공인 등 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제2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포 편입 ‘서울 확장론’ 밀어 붙이는 국힘 “수도권 총선용 카드…균형발전 저해” 지적

특별법 제정·추진 기구 구성 논의

국민의힘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김포를 서울에 편입하는 ‘서울 확장론’을 앞세우며 수도권 표심을 공략하고 있다. 최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 등으로 당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어 수도권 민심을 되돌리기 위한 반전 카드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이 약화하고 있는 서울과 경기도의 서울 인접 지역 총선을 대비한 전략으로 풀이되면서 국민의힘이 총선 대형 이슈를 선점했다는 평도 나오고 있다.

1일 국민의힘이 경기 김포시의 서울 편입을 위한 특별법을 발의하기로 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김포의 서울 편입을 정부 입법이나 의원 입법으로 당론 추진하기로 했다.

일반법이 아닌 특별법으로 가닥을 잡은 것은 특별법이 일반법 상위에 놓이는 만큼 다른 관련 법안들을 일일이 개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단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당장 ‘서울시 김포구’ 구상을 실현하기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김기현 대표가 김포 지역 여론을 공론화하고 이를 당 차원의 특별법 제정, 별도 추진 기구 구성 논의 등 각종 후속 조치가 쏟아지고 있다.

당 상크령인 여의도연구원은 일찌감치 수도권 전역을 대상으로 빅데이터·SNS 여론 분석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5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총선 때까지 이같은 ‘서울 확장’ 드라이브를 유지하겠다는 구상

이다. 여기에는 ‘수도권 총선 위기를’ 극복할 전략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깔렸다.

핵심 당직자는 “수도권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니셔티브를 잡은 형국이 됐다”며 “인접 도시 여론을 잘 살피되 속도감 있게 후속 조치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소속인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포시장의 회동, 김 대표와 원의 당협위원장들 간 만남 등도 당 안팎에서 여론몰이를 이어가겠다는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총선용 급조 정책”이라는 야당의 비판에는 “지역 여론 수렴” 논리를 내세워 맞서고 있다.

윤재욱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지역민의 요구 등이 전제”라고 강조했다.

오신환 혁신위원은 SBS 라디오에서 “내가 서울시 부시장을 할 때부터 김포시장과 그런 논의가 일부 있었다”며 “야당이 주장하는 대로 ‘총선 대비’라는 반응은 불필요한 논쟁”이라고 일축했다.

또 다른 핵심 당직자는 통화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총선 목전에 발표하는 모든 게 다 선거용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며 “민주당은 직접 반대도 못 하면서 매도만 하는 것은 구차하다”고 맞받았다.

한편, 당내 비주류인 이준석 전 대표는 CBS 라디오에 나와 “김포시민 숙원사업은 5·9호선 연장인데 서울시로 편입되면 광역철도가 아닌 도시철도가 돼서 사업이 어려워진다. 국비로 해야 할 것을 시비로 전환해야 한다”면서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 황당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인요한 “동일 지역구 3선 초과 연임 금지 혁신위 안전 가능”

2호 안전 의원 정수 축소 등 검토

국민의힘 인요한 혁신위원장은 1일 “국회의원의 동일 지역구 3선 초과 연임 금지 방안”을 혁신위의 논의 안건으로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인 위원장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국회의원이 한 지역구에서 세 번을 하고 다른 지역구로 옮기든지 하는 때우 많은 아주 신선한 아이디어들이 오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동일 지역구 3선 초과 연임 금지안에 대해 “아직 정해진 것은 없고 이것만이 방법이라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3선 이상을 한 인기가 있고 노련한 분야면 자신의 지역구를 바꿀 수 있는 옵션도 주는 등 여러 방안을 묶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정치인이 어떻게 무엇을 내려놔야 국민이 신뢰할 건인가를 지금 논의하고 있다”며 “아직 총선 틀에 관해서는 토론을 안 했는데, 선거를 문제도 크게 이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혁신위의 ‘2호 안전’으로는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과 면책특권 제한, 국회의원 정수 축소도 검토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인 위원장은 ‘영남권 스타 의원 협지 출마’, ‘낙동강 하류 세력 뒷전에 서야 한다’는 자신의 발언을 두고 영남권 의원들이 반발한 데 대해 “섭섭하다”, ‘사과해라’ 별말을 다 하지만 각자 나가야 할 길을 다 알고 있다”며 “알고 있는데 안 할 뿐이다. 모두가 답을 다 알고 있으니 그냥 하면 된다”고 했다.

그는 언론 인터뷰에서 김기현 대표와 주호영 의

원을 ‘영남 스타’로 지목했던 것과 관련해선 “보도가 잘못 나간 것”이라면서도 “경상도에 여당 의원들이 많은데 거기에서 돈 사람들이 서울에 와서 좀 도와주고 어려운 곳에 와서 희생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나는 이순신도 좋아하지만, 계백을 좋아한다”라며 “이제 정치하는 사람들이 희생하고 국민이 이득을 봐야 한다. 이제 생각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 위원장은 혁신위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당정관계 재정립 방안을 건의해야 한다는 당 일각의 요구에 대해서 “대통령께 국민 목소리를 알려드릴 기회가 있으면 좋겠지만, 대통령을 향해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건 월권”이라고 말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민주, 여야 합동 선관위 해킹의혹 검증위 제안

국힘·국정원 “동의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보안 점검 과정에서 국가정보원이 시스템에 설치한 점검 도구가 삭제되지 않아 불거진 해킹 의혹과 관련, 여야가 함께 참여하는 비공개 검증위원회 설치를 제안했다.

국회 정보위원회가 이날 서울 서초구 내곡동 국정원에서 비공개로 진행한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양당 간사가 참여하고 양측이 인정하는 전문가들을 모아 비공개 검증위를 설치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말했다.

이에 김규현 국정원장은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답했다고 정보위 국민의힘 간사인 유상범 의

원, 민주당 간사 윤경영 의원이 전했다.

국민의힘 역시 야당의 합동 검증 제안에 사실상 동의했다. 유 의원은 “(국정원이 시스템에 남겨둔 것이) 보안점검 도구인지 해킹 툴인지 확인 작업, 그리고 어떻게 삭제됐는지 확인 작업을 정보위와 함께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국정원은 “보안점검을 실시하고 시스템 내에 있던 점검 툴을 삭제하려 했는데 9월 13일 선관위에서 시스템 접근 권한을 부여하지 않아서 접근할 수 없게 됐다”고 해킹 의혹을 부인했다. /연합뉴스

함께하는 100년농협



아름다운 동행 서광주농협

농업인·고객·지역사회와 함께 농업의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고, 더불어 사는 밝은 미래를 만들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NH 국민은행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쿨!

조회, 송금, 결제, 대출 그리고 금융서비스까지!

전국 3,000여 개 하나로마트에서 쿨! 바로 바로 확인까지 쿨!

올바른 POINT UP 카드

국내·외 전 가맹점에서 무제한 포인트 적립!
전 가맹점 최대%적립 + 생활밀착형 가맹점 추가 적립
전자금융 수수료 면제, 국제공항 라운지 무료이용

NEW 리치하우스 가정종합보험 2201 (무배당)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화재 피할 수 없어도 대비해야 합니다

임시거주비(숙박비+식비) 하루 10만원(임의상90일한도)
한도 실손보장(해당특약가입시) 월5만원으로 만기시 80%환급 (매월변동가능, 공시이율 2022년 1월 기준)

햇살론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위한 따뜻한 금융

저신용자, 저소득자 서민(사업자 및 근로자)을 위한 대출, 개인신용등급에 따라 대출한도 차등 적용

본점 | 광주광역시 서구 죽봉대로 107(광천동) TEL. 062)362-8400~6 FAX. 062)362-8407

용산지점 062)526-0222~3
치평지점 062)381-8212~3
쌍촌지점 062)381-6551~2
외정지점 062)372-0421~3

유동지점 062)512-1984~5
동림지점 062)513-8521~3
운암지점 062)527-3295~6
운천지점 062)371-2772~3

유덕지점 062)373-3235~6
동운지점 062)528-2640~2
배틀지점 062)381-1971~2
상무동지점 062)372-3741~2

운암벽산지점 062)529-5335~6
빛고을로지점 062)531-1213~5
양동센트럴지점 062)361-4472~4
기아자동차지점 062)385-4977~8

동림하나로지점 062)531-7745~6
로컬푸드(시청) 062)364-8400
유덕하나로마트 062)373-3235
하나로마트동림점 062)511-2901~3

지역대표 금융기관 서광주농협